

사랑침례교회 소개 및 안내

(2017. 12)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



사랑침례교회

Charity Baptist Church

새 가족 오리엔테이션 가이드

안녕하세요?

사랑침례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따라 진리를 추구하려는 모든 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함
2.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함
3. 진리의 말씀을 추구함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줄 이 책자는 방문자들이 저희 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 및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또 회원이 되기 원하는 분들이 회원으로 정착하여 온전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조직, 교회 생활 Q&A, 교리, 철학, 문화, 침례성도들의 특징 및 유산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회 홈페이지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상세검색에서 원하시는 키워드를 넣으면 찾고자 하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뜻하는 ‘영혼의 자유’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이 교회 안에서 방종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지역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규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를 ‘홈 처치’(Home church)로 정하시기 전에 우선 이 책자와 헌법 그리고 ‘필수 설교/강해 40선’을 들으시면서 여러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회원 가입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한 데가 아닙니다. 다만 성령에 가까운 교회가 되려고 노력할 따름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랑침례교회의 일원이 되기 원하는 분들은 지나 리더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침례교회 목사(패스터) 정동수

1. 교회 역사

1. 교회 시작 배경

사랑침례교회는 2008년 3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디모데 스쿨’의 창립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디모데 스쿨’은 예배 모임이 아니라 주중 저녁에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남쪽에 30평의 1층 상가가 마련되자 디모데 스쿨에 모인 몇 사람들 가운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8년 5월부터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 처음 1년(2008.5-2009.4)

2008년 5월 4일 처음 예배를 드린 인원은 아이들을 포함하여 9명이었습니다. 이때 디모데 스쿨에서는 2008년 1학기에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였고, 2학기에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가을부터는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성도들 간의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2월에 예배 참석 인원이 45명을 넘어서면서 장소가 비좁아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진:
첫 예배당과 디모데스쿨

2. 그다음 3년(2009.4-2012.3)

2009년 4월 역시 송내역 근처에 있는 건물의 5층으로 이사하였고 여기서 2009년 5월 3일에 정식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회원 가입을 하고 교회를 위해 일할 집사 형제들도 선출하여 서로를 섬기는 교회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2009년에는 성막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2010년 4월에 다시 예배당이 비좁게 되어 역시 송내역 옆에 있는 건물의 3-4층을 얻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진리를 찾으며 원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2년 뒤에는 예배 참석 인원이 250명을 넘어 또다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내역 부근에서는 500명이 들어가는 건물을 구할 수 없고 또 있어도 매월 1,5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여러 성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두 분이 인천 소래포구 옆 논현동에 신축 상가 12층과 11층 반(총 분양 평수 525평)을 직접 구매한 뒤 교회가 은행 이자만 내면서 사용하다가 여유가 되면 후에 구매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3. 그다음 6년(2012년 4월부터 2018년 7월): 소래 예배당

2012년 4월에 소래 예배당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2013년부터 예레미야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가을부터는 교회 성도들의 성경 지식 함양을 위해 사랑침례교회 신학원(성경학교)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전한 뒤 1년 반이 지난 2013년 10월에는 교회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동일한 두 분이 11층 반(175평)을 구매하여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교회가 쓸 수 있게 해 주었고, 그 이후로 12층 전체를 예배실로, 11층은 교육실과 교제실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12층 예배실에는 650석이 있고 요즘 주일에는 53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의 특징 중 하나는 부모와 아이들이 오전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동일한 설교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예배드리는 자세와 예배의 의미를 알려주는 산 교육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신앙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간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저희 교회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유지할 것입니다.

4. 서창 예배당(2018년 7월 이후 예상)

2016년 들어서면서 소래 예배당에 600명 이상이 모이자 장래를 위해 자체 건물을 짓고 이전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6년 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 IC에서 3분 거리에 있는 1,000평의 종교 부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2)를 LH 공사로부터 구매하였습니다. 그 뒤 자금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진행하여 최종 안을 결정한 뒤 2017년 8월 13일에는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서창 예배당은 총 1,800명을 수용하는 '연건평 1,500평의 건물'이며 우리는 2018년 7월경에 이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교회 홈페이지에서 '교회 부지 구매'로 검색하면 기사가 나옴). 서창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저희는 최저 가격으로 최적의 예배 및 교육 그리고 교제 공간 확보를 목표로 삼았고 또 인천시가 해운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면부의 벽체 및 주 탑은 인천시의 상징인 운송 컨테이너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2. 교회 조직

저희 교회는 미국침례교회들처럼 디모데전서 3장에 의거하여 목사¹⁾와 집사만 교회의 직무 수행자(Officers)라고 믿습니다. 교회 조직은 크게 집사회, 지역 인도자 모임, 섬김 부서 그리고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사회

집사회는 교회 재정과 일 년 일정 등의 큰일만 다룹니다. 실제로 섬기고 일하는 것은 다 섬김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제는 지역 조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집사회는 교회의 공적 기관으로 대내외적 큰 문제가 있을 때에만 외적으로 활동하고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집사들의 상당수가 섬김 조직과 지역 조직의 리더가 됩니다.

집사와 지역 인도자는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임 의사를 물어 다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사정과 영혼의 자유를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집사와 지역 인도자는 부부가 합심해서 섬겨야 하는 직분입니다.

집사

1. 집사라는 말은 ‘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의 중’입니다(상전이 아님). 따라서 집사 부부는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가진 재능과 재물 등으로 신실하게 목사와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이분들의 자발적인 섬김의 직무를 감사히 여기고 이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2. 교회 안에서 계급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또 집사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호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본인도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 침례교회들에서 지금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3. 이처럼 집사 직무 수행자를 ‘집사님’이 아니라 ‘형제님’으로 부르면 그분이 다음 해에 사정이 있어 하지 못해도 여전히 호칭은 변함없이 ‘형제님’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으로 부르게 되면 그만두게 될 때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다른 성도님들도 그만두게 된 그분을 여전히 ‘집사님’으로 부르지 ‘형제님’으로 부를지 애매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달리 한시적 임명직인 집사는 미국 교회에서도 ‘집사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나 다른 분들이 집사 형제님을 다른 교회 목사나 형제들에게 소개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집사 홍길동 형제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홍길동 형제가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4. 이와 관련해서 목사의 경우 목사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은 분들은 ‘정 형제님’이라고 불려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정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1) 목사와 감독 그리고 장로는 같은 직무 수행자를 가리키는 말이다(딤후3장, 딤후1장)



서창 예배당(2018년 7월 완공 예정)

위해 좋습니다. 또 목사 형제의 아내는 목사의 아내임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사모님'이라고 부를 뿐, 계급적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5. 집사의 의무

- (1) 특별 사유가 없는 한 부부가 주일 오전과 오후 공예배와 금요 모임 그리고 토요 기도회에 모두 참석한다.
- (2) 주일 오전에는 10시까지 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오후 예배 이후 저녁 식사를 마치기까지 남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
- (3)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헌금 생활을 한다. 특별히 건축을 위한 풀링에 힘껏 참여한다.

6.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여 명이 집사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7. 집사 대표는 두지 않되 집사회에서 재정부를 담당하신 형제님께서 분기마다 재정 상황을 보고하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알리며 집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8. 또한 2014년부터는 집사 형제님들 중에서 한 분이 침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아닌 형제들 중에서도 교회의 임명을 받으면 얼마든지 침례를 줄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미국 독립침례교회의 경우 매우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목사만 침례를 주는 줄로 생각하기에 '이런 고정 관념'을 깨기 위해 이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도자

저희 교회 성도들은 여러 지역에 분포하므로 현재 7개 지역으로 나누어 새로 오시는 분들과 기존 멤버들이 잘 교체할 수 있도록 지역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인도자들은 지역 내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지역 인도자의 의무 역시 집사의 의무와 동일합니다. 다만 서울, 분당, 구리, 일산 등 먼 곳에 거주하는 인도자의 경우 금요 모임은 못 오더라도 토요 기도 모임은 부부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 |
|--|
| (1) 부천 및 부평, (2) 시흥 안산 광명, (3) 구리 및 남양주, (4) 분당 및 용인
(5) 인천 중남부(논현, 송도, 주안 등), (6) 서울, (7) 일산 및 먼 곳 |
|--|

지역 모임의 경우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지역에서 모임을 갖거나, 주일 오전 예배 후 점심시간에 한 팀씩 돌아가며 두 달에 한 번 커피 교제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 지역 모임은 기존 교회의 구역 모임과는 성격이 다르며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역 성도들과의 교제와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지역 모임의 목적입니다. 또한 체육대회나 성경퀴즈대회 등 교회 행사가 있을 때에 지역 모임을 기준으로 팀을 나누어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인원이 늘면 지역 모임 수는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모임 안에 여러 개의 소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

섬김 부서

실제로 교회 일은 거의 다 섬김 부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섬김 부서는 교회의 손과 발입니다.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피를 나르는 역할을 하는 섬김 부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에는 다음과 같은 섬김 부서가 있습니다.

예배 진행, 지역 관리, 미디어 선교, 방송실, 차량/주차관리, 서점/도서관, 시설관리, 애경사, 음악, 주방 섬김 등
--

예배 섬김: 예배 및 교회 행사 주관

- 매 분기별로 기도 및 간증 순서를 배포한다.
- 순서는 담임 목사가 정하고 선정 후에는 예배 섬김부에서 관리한다.

- 일정이 맞지 않아 순서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예배 섬김부에 사전 연락하고 또 간증하기를 원하는 분은 예배 섬김부에 신청한다.
- 매분기에 두 번 주의 만찬이 있다: 1분기(1월, 3월), 2분기(4월, 6월), 3분기(7월, 9월), 4분기(10월, 12월) 둘째 주에 시행함.
- 주의 만찬은 침례와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신약 교회에게 주신 규례이다. 주의 만찬의 요소는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포도즙(포도주스)이다.
- 2-3개월에 한 번씩 오후 모임 시간에 연령별이나 지역별 혹은 제비를 뽑아 소그룹 모임을 갖는다. 이때 형식은 자유롭게 하며 최근에 오신 분들이 자기를 소개하도록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 8월에는 한여름 음악회를 열고 12월에는 연례 음악회를 가진다.
- 3-4개월에 한 번꼴로 침례를 주며 침례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을 받는다.
- 여름에는 원하는 부서별로 휴양회가 갖는다.
- 연 1회 특정 주일 오후에 가까운 곳에서 친목과 휴식시간을 갖는다.
- 12월 31일이 화, 수, 목, 금요일이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성탄절 등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 교회 안에 십자가 등의 어떤 형상도 두지 않는다.

지역 관리

- 지역 인도자 중에서 한 사람이 전체 모임 및 성도들 현황을 파악하여 성도들의 필요를 교회와 목사에게 알린다.

미디어 선교

- CD 제작, 소책자 발간,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교를 담당한다.
- 미디어 선교에 필요한 현금은 일 년에 한 번 특별히 따로 하고 있다. 미디어 현금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진행한다.
- 모금한 금액은 교회 재정과는 별도로 관리되어 CD 제작과 소책자 발간, 미디어 홍보 등에 사용되며, 국내외 전 세계의 필요한 곳에 발송 작업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방송실

- 설교 녹화,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마이크/스피커 시설을 관리한다.

주차관리/옥상관리

- 주일 아침에 교회 앞에서 차량 주차를 돕는다.
- 점심시간에 교회 건물 주변과 옥상에서 노는 아이들을 관리한다. 이 일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봉사한다.

서점/도서관

- 소강당 뒤편에 있는 서점은 교회 도서관의 책을 대여해 주며 성경 및 신앙 도서를 판매한다.
-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는 서로 독립적인 별개 기관이다.

시설관리

- 교회 건물 시설을 유지/보수/관리한다.

애경사

- 결혼, 초상 등 애경사가 발생할 때에 섬기는 일을 한다.

음악

- 찬양대, 특송, 음악회, 오케스트라 등 교회의 모든 음악을 총괄한다.

주방 섬김

- 두 달에 한 번씩 조를 짜서 돌아가며 식사와 설거지 봉사를 한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해의 주방장 자매님에게 신청하면 된다.
- 현재 교회에서는 대다수 성도들이 참여하는 점심 식사와 150-200명이 참여하는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

집사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위원회, 재산 관리 위원회, 회원 위원회

재정 위원회

- 집사들로 구성된 재정 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재정을 총괄하여 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분기마다 회중에게 재정을 보고하고 매달 게시판에 재정을 공개한다.

재산 관리 위원회

- 재산 관리 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회원 위원회

- 회원 위원회는 침례 대상자와 교회 회원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와 면담하여 교회의 믿음에 대한 이해와 구원 여부를 확인하고 또 교회 안에서 회원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권면과 징계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교회 직원

2018년에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면 교회 행정 사무를 보는 분들을 두려고 합니다. 또한 자녀들 교육 및 미디어 선교를 위해 필요시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두려고 합니다. 물론 부목사/교육 목사 등도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정하여 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부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서가 교회 학교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전에는 학생들도 모두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교회 학교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 특성상 부모가 모두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교육은 오후에 교회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부: 5~7세, 유년부: 초등학교 1~3학년, 초등부: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부: 중고등학생, 청년부: 20세~29세

교회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과 각 부서를 맡은 부장 선생님 그리고 설교와 생활/신앙 지도를 맡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부터는 청장년들과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교육 과정도 보완하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도 확고히 가르칩니다.

유치부의 경우 여러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오후에 독립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선생님들께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이니 이해해 주시고 부모님들은 2시 어른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의 경우 주일 오후에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청년부의 경우 주일 오후에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며 오후 예배 후 또는 다른 날에 모임을 갖습니다.

교제 모임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친교 모임을 형성하여 다양한 주제로 교제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현재 교제 모임에는 영어 찬송 배우기, 축구, 콰이어, 등산, 전도, 40대 자매 모임, 50대 자매 모임, 바둑, 사진 모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주제로 모임을 갖기 원하는 분들은 교회에 말씀하신 뒤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모임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3. 교회 생활 Q&A

주보

저희 교회는 주보가 없습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 오전 예배: 10시 55분, 주일 오후 예배: 2시

목요자매모임: 매주 목요일 10시, 금요 모임 : 금요일 저녁 8시

기도회: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예배 순서

오전 예배 : 찬송 2곡 -> 시작 기도 -> 찬송 2곡 -> 대표 기도 -> 광고 -> 성경
낭독 -> 특송 -> 말씀 선포 -> 찬송 1곡

오후 예배 : 찬송 2곡 -> 대표 기도 -> 광고 -> 간증 -> 성경 강해나 설교

축도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뒤에 축도가 없습니다. 목사는 성도들과 동일한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먹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주기도문

저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원래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미국의 모든 침례교회들처럼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유물로서
기계적인 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틀리거나 오해를 일으킬 부분이
더러 있고 또 참된 믿음 고백은 각 사람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말로
해야 하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통성기도/방언

저희 교회는 통성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언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록 음악/밴드

저희 교회에서는 록 음악, 랩 음악, 밴드 등이 동원되는 '경배와 찬양' 형태의
예배나 구도자 예배 등은 드리지 않습니다. 악기로는 피아노와 클래식 음악용
오케스트라 악기들만 사용합니다.²⁾

2) 교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 상세 검색에서 '왜 안 하는가? PDF 파일'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복장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분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예배 때 앞에 서야 하는 형제님들은 깨끗한 바지와 넥타이를 기본으로 하고 자매님들은 가급적이면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므로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꾸미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이들 역시 단정하게 입혀서 데리고 나오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형제님들이 반드시 넥타이를 해야 하고 자매님들이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 단정하게 입고 오시되 예배 때 앞에 서는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에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립니다.³⁾

유아실(자모실)

예배당 뒤의 유아실은 4살 이하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4살 이상의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유아실은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음식물/음료 반입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공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커피 등의 음료는 식당이나 친교실에서 드시고 예배당에 음료를 담은 컵을 들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 면담

새로 오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예배당 옆의 목사실이나 친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습니다.

도움과 안내

그 외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안내/사무를 보시는 분들이나 교회 리더들에게 알려주시면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및 음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무료로 모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주일 저녁 식사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두커피 및 음료도 무료입니다. 서창 예배당으로 이전하여 성도가 크게 늘어날 경우 성도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할 수 없으므로 외부인들을 고용해야 할지 모르며 이 경우 최소액의 식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것을 볼 수 있고 교회에 비치된 〈왜 안하는가?〉 책자를 가져다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상세 검색에서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 찬양 뒤 박수 자제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이 끝나면 손뼉을 치지 말고 큰 소리로 “아멘!” 하고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찬양을 한 성도나 팀이 영광을 받기 쉽습니다. 예배에서 영광과 찬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찬송가 부른 뒤 아멘 안 함

원래 찬송가(대다수가 미국 및 영국 찬송가)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아멘이 모든 찬송가에 추가되었기에 저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찬송가를 부른 뒤 ‘아멘’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설교 및 기도 시간에 아멘 하는 것

설교나 기도에 감동이 될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도 됩니다. 다만 이런 좋은 일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예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와 특별 찬양

원래 찬양대(혹은 성가대)를 고정적으로 예배당 앞에 두는 것은 구약 시대의 풍습입니다. 특히 천주교회가 중세 시대에 타락하면서 수도사들 중심의 성가대가 구성되고 그레고리안 찬트 등의 성가대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주교나 구약 시대의 유산으로서의 찬양대는 신약 교회에 필요치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성가대석을 배치하고 매주 성가대 음악 프로그램을 넣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찬양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악기와 입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특히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 개인이든 그룹이든 -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기 원하면 미리 준비하고 음악 담당 형제님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헌금

우리는 신약 교회에서 자발적인 헌금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 살던 모든 백성에게 강제로 부과된 십일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일조의 원리는 믿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신약 시대에도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 이상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만 이런 헌금 행위를 교회가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회계 보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분 앞에서의 마땅한 의무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늘에서의 보상을 생각할 때 성숙한 성도라면 자기 형편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통해 복 주신

것 중에서 기꺼이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주일 예배에 헌금 시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누구나 예배당 뒤에 놓여 있는 헌금함에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예배 순서에 따로 봉헌 시간도 있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등을 위해 증명 서류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봉투에 이름을 써서 헌금하시고 필요시 재정부에서 서류를 받아 가시면 됩니다.

또한 헌금 봉투의 종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즉 선교 헌금, 교육 헌금, 소그룹 헌금, 각종 기념일 헌금, 각종 절기 헌금 등의 다른 헌금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 모임 등에서도 다른 헌금이나 모금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원칙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한정적으로 특별 목적 헌금은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두어 가지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5월에는 미디어 선교를 위해 미디어 선교 헌금을 걷습니다. 11월에는 건물 헌금을 걷습니다. 또 필요시 12월에는 교회 안의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사랑의 헌금을 걷습니다. 또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어떤 지역을 위해 선교해야겠다는 필요가 생기는 경우 얼마든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특별히 목적인 바를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헌금입니다.

교회 크기

저희 교회는 강제적인 규정에 의해 교회 규모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줄어들면 또 거기에 맞게 대응합니다. 인위적으로 교회 규모를 정한 뒤 그것을 넘어서면 무조건 교회를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에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축과 풀링

교회가 늘어나면서 저희 교회는 자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풀링(Pooling) 제도를 운용합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3년 이상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교회에 본인이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을 이자를 받지 않고 교회의 건축 재정 풀(Pool)에 빌려줍니다. 그 뒤 약정 기한이 도래하면 교회는 원금을 성도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성도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건축에 참여하게 하여 원하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역시 풀링에 참여하셔서 미리 하신 분들이 풀링 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에게도 폴링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진 가정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건축을 위한 폴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언급된 대로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고후8:13-14).

회원 가입

구원받고 침례 받으신 분 중에서 저희 교회의 '믿음과 약속'(헌법)을 읽고 거기에 동의하는 분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믿음에 동의하는지 여부이므로 회원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지정한 '회원 가입 필수 설교/강해 40선'⁴⁾을 듣고 들은 것을 서명한 서류와 우리의 믿음과 약속을 확인하신 후 회원 가입 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 위원회는 특정 주일 오후에 침례를 받기 원하거나 회원이 되기 원하는 분들과 면담을 하여 구원받은 열매가 분명히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교회는 침례를 주거나 회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행하는 새 신자 혹은 새 가족 오리엔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믿음을 담은 '40개 필수 설교/강해'를 듣고 이에 동의하여야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므로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 최소한 3개월 이상 지나서 저희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몸으로 체험하고 필수 설교를 들으신 뒤 가입 원서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동의가 된다 해도 지체들과 더불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 하므로 최소한 누가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회원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⁵⁾

신학원

신학원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성경학교(Bible Institute)입니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본 교회 성도들입니다. 신학원은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한 신학교가 아니므로 교회 회원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교회에 비치된 '40개 필수 설교/강해' CD를 가져가서 듣든지 혹은 교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 상세 검색에서 '회원 가입 필수 설교/강해 40선'으로 검색해서 시청해도 됩니다.

5) 홈페이지 상세 검색에서 '사랑침례교회 믿음과 약속(헌법, 정관)', '회원가입 원서(서류)'로 검색하면 자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교회 믿음 진술 요약

1. 성경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섭리로 보존되어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이 시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 성경을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충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2.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하고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또한 이 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는 '뚜렷이 구분된 세 인격체' 즉 삼위일체로 존재함을 믿는다.

3.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영존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제거하셨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4.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같이 거룩한 인격체이시며 그 두 분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로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음을 믿는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순절 이후부터 모든 신자들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

5. 사탄과 마귀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수없이 많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루시퍼가 타락할 때 많은 천사의 무리가 그를 따라 타락함으로써 마귀들이 되어 사탄의 대리자요, 조력자로서 악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6. 우주의 창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의 실제 역사로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약 6,000년 전에 24시간의 하루를 6일 동안 사용하셔서 문자 그대로 그 6일 동안에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

7. 사람의 창조와 타락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왔다. 첫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과 무죄함을 잃어버리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게 되었다.

8. 구원과 중생과 성화

우리는 죄인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누구라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는다. 이 세상의 행위나 도덕이나 규례 준수 등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중생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중생이 일생에 단 한 번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는 평생토록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믿는다.

9. 교회

우리는 지역 교회가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되며 믿음의 약속과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체라고 믿는다. 지역교회의 직무 수행자로는 목사와 집사가 있다. 또한 우리는 침례와 주의 만찬만이 지역교회에 주어진 규례라고 믿는다.

10. 성경적 분리

우리는 성경적인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성과 현대주의 교회의 배도, 신복음주의, 은사주의, 부도덕, 성경이 말하는 타협, 그리고 '무질서한 형제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

11. 정부

우리는 개인의 자유,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법치주의에 근거한 시민 정부가 인간 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관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행정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

12. 휴거와 재림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살아 있는 신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환난 전 휴거'를 믿는다. 또한 우리는 7년 환난기가 끝난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사탄을 묶어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에 가두실 것이다.

13. 영원 상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몸이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다. 반면에 불신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불 호수라고 기록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5. 교회 철학과 문화

1. 교회 비전

■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함 ■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함 ■ 진리의 말씀을 추구함

2. 교회 목표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3. 교회 철학

교회 철학이란 교회 비전에 따라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회 운영 원칙을 말한다.

보통 철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흔히 인식, 존재, 가치의 세 기준에 따라 하위 분야가 나뉜다.
2.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관, 세계관, 신조 따위를 이르는 말.

성경은 세상 철학을 무가치하게 여긴다(골2:8).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철학은 위의 정의 중 첫째에 해당한다. 우리는 성경적 근거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은 철학은 반대한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철학은 위의 정의 중 둘째 것을 의미한다.

가정에도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이런 원칙은 가정의 리더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따라 집집마다 다르다. 어떤 가정은 교양과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예의나 도덕 및 질서 준수 등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무자비하게 남을 누르고서라도 돈, 명예, 권력 등을 획득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아이들이 어떤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가정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삶의 목표가 다르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회를 보는 눈이 다르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유기체이며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이 모인 조직체이다. 모든 성도는 유기체의 일부로 주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야 한다. 그에 반해 세상 철학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땅에 있는 지역 교회는 믿는 바를 성도들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원칙으로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우리는 '교회 철학'이라고 부른다. 가정마다 철학이 다르듯이 지역 교회 역시 리더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어떤 것에 우선권을 두는지에 따라 철학이 다르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회의 목표 및 가치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4. 교회 문화

교회 문화는 교회 운영 철학에 따른 성도들의 믿음 생활양식과 열매로 규정할 수 있다.

5. 교회 철학과 문화의 구체적인 사례

5.1 첫째 비전에 근거하여 거룩함을 강조함

참으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성품을 조절하는 근본 속성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으며 그 결과 그분의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모든 사랑은 기준이 있어야 바른 사랑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거룩함이다. 사랑이라는 엔진은 아무 데나 굴러가면 무절제의 도구가 된다. 바로 이때 그분의 거룩함이 사랑이라는 엔진을 조절하여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레일이 되므로 그것은 사랑보다 높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만족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거룩함보다 사랑을 더 중요시한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조차 거룩함을 찾기 어렵게 되었고 각 사람이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께 나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거룩함이라는 궤도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각종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교회가 수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며 그런 식의 거룩하지 못한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가증하게 여기신다(잠28:9).

그러므로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다.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거룩함이 갈등을 일으킬 때 반드시 거룩함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 있으며 존재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실행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를 쓴다.

다음 그림은 거룩함과 믿음의 실행의 관계를 잘 보여 준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즉 예배, 섬김, 교제, 교육, 선교, 의복, 언행, 음악 등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드리며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등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은 교회가 양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 시키지 않으며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향에서 판단하고 치리하고 권징한다.

5.2 둘째 비전에 근거하여 자유 신약 교회를 추구함

우리 교회는 성도의 ‘영혼의 자유’(Soul liberty) 곧 ‘양심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라 믿는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 즉 자유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영혼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 성도의 의무와 책임에도 힘을 쏟는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자유 교회(Free church)가 성경에 나오는 신약 교회의 바른 모델이라고 믿으며, 이와 같은 자유 교회를 바르게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신자의 양심에 비추어, 우리가 전통적 한국식 교회의 종교적 관습에서 벗어나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며 교회의 모든 일을 성경적, 합리적, 상식적으로 행한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김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좌에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형성된 이후 주어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근거하여 신약식 교회를 추구하고 운영한다. 또한 목사의 제사장화나 예배당 건물의 성전화 그리고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부과된 각종 헌물 및 규례 등을 철저히 배격한다.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 희생으로 완전한 신약 시대가 열렸으므로 이제 더는 구약 시대의 형식과 계급체제 등이 필요 없다. 이를 확실히 인식한 자유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구약 시대의 형식에 갇힌 ‘의식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비의식 예배’를 추구하며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식 교회인 천주교회에서 나온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송이나 목사의 축도 등을 하지 않는다. 또한 구약 시대의 십일조, 일천 번제 등도 하지 않으며 각종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특히 헌금에 관한 한 우리는 성도 개개인이 수입의 십분의 일 정도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다. 또한 교회가 정한 특별 목적 헌금 외에는 모두 한 종류의 감사 헌금으로 드린다. 또한 헌금 당사자나 액수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또한 교회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과 지출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목사가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직무 수행자의 계급화를 막기 위해 집사 및 지역 인도자 등 리더들은 종신직이 아니라 임기직으로 임명하며 특히 집사의 경우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

공예배 시 대표 기도나 시작 기도, 말씀 낭독, 주의 만찬 집행 등을 리더들 중심으로 하면서도 가능하면 여러 회원이 돌아가며 할 수 있게 한다.

교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음악 담당자와 상의한 뒤 특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구약식 성가대와 성가대석은 상시로 두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믿으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형식의 교회 성장을 반대한다.

5.3 셋째 비전에 근거하여 진리의 말씀을 추구함

우리 교회는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담은 성경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 성경을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충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 성경 공부, 아이들 교육 등에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

우리는 공예배를 빼고는 개별적인 골방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통성 기도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도들의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 신학원을 운영한다. 신학원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가 아니라 성도들의 성경 지식 증대와 성화를 위한 성경학교이다.

성도들의 모임에서 성경을 영해하기 쉬운 QT 성격의 성경 공부는 자제한다. 이런 형태의 성경 읽기는 경건 서적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문자적 해석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며 7년 환난기 전에 교회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휴거 됨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몸이 문자적으로 휴거됨을 믿으며 주저 없이 이런 확신을 가르치고 선포한다. 우리는 재림의 큰 소망을 의지하며 평화롭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

5.4 교회의 최우선 목적에 근거하여 구원과 성화에 힘을 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을 쓴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우리는 미디어 선교에 역점을 둔다. 특히 모든 자료는 무료로 책이나 CD로 보급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성도는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분된 사람'이므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고상한 것들을 추구하여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는 데 힘을 쏟는다.

성도는 언행에서 마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 성도는 자발적으로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교제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며 이를 통해 주님을 섬긴다.

성도의 성화 중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위선과 가식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예' 해야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오' 해야 할 때는 '아니오' 하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체들과의 교제에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우리는 온 가족이 오전 대예배에 함께 참여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제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므로 통상적인 지역 모임에서는 성경 공부보다는 성도들 간의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단정한 옷차림과 고상한 언어 습관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함을 믿으며 이를 권장한다.

우리는 성도의 간증이 본인과 다른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음을 믿고 자발적으로 간증에 참여하도록 권한다.

5.5 상식에 근거하여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

우리는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 그래서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교회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여자들은 남자들을 가르치는 직무 수행자(목사와 집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의 여러 현안을 논할 때 언제라도 질서 있게 발언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우리는 부부가 한 몸임을 믿는다. 따라서 목사, 집사, 지역 인도자, 선교사 등을 임명할 때 부부가 함께 신실하게 섬기고 일해야 함을 믿는다.

목사, 전도사, 설교자를 임명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소명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아무리 본인이 소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그 형제의 섬김, 가르침, 인도 등을 통해 변화받은 사람들의 증언과 간증이 뒤따라야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출석한 지 오래된 성도들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장려하나 주인 행세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은 존중하지만 그것이 기득권이 되는 것은 경계한다.

우리는 독서가 인간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으며 특히 경건 서적 읽기를 권장한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의 발표력, 리더십을 키워 주기 위해서 스피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으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갖는다. 또한 바른 정서의 함양을 위해 기회가 되는 대로 음악회 등의 문화 행사를 갖는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랑침례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만 교회라는 독단적 자만과 우월성 그리고 배타성을 성도들에게 심어 주는 것은 큰

잘못이며 늘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세대와 국가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배치되는 동성애, 낙태, 이슬람,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을 반대함을 담대하게 세상에 천명한다.

6. 침례 성도들(Baptists)의 특징⁶⁾

1. 성경의 최종 권위: Bible's Final Authority (딤후3:16-17)

침례 성도들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으며 또 동일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을 완전한 섭리로 보존해 주심을 믿는다.

2. 자치적 지역 교회: Autonomy of Local Churches (마18:15-17)

침례 성도들은 지역 교회가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몸으로 오직 우리 주(主)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독립 기관임을 믿는다.

3. 전 성도 제사장 직분: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벧전2:5-9)

침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약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 없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다.

4. 교회의 두 규례: Two Ordinances (마28:19; 고전11:23-32)

침례 성도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만이 지역 교회의 두 가지 규례임을 믿는다.

5. 개인 양심의 자유: Individual Soul Liberty (롬14:5-13)

침례 성도들은 속사람의 명령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가장 중히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믿음의 자유를 소유하였음을 고백한다.

6.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회원권: 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행2:41-47)

침례 성도들은 구원받은 신자만이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됨을 믿는다.

7. 지역 교회의 두 직분: Two Offices in Local Churches (딤후3:1-13)

침례 성도들은 교회 내에 오직 두 가지 직분 즉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음을

6) 침례 성도들의 여덟 개 특징의 영어 제목 첫 글자를 합치면 Baptists가 된다.

믿는다.

8. 교회와 국가의 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마22:15-22)

침례 성도들은 교회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되어야 하며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을 믿는다.

7. 침례 성도들의 유산

신약 교회의 설립 이후 침례 성도들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항상 서민들에게 접근하여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침례 성도들은 시종일관 인격화된 기독교 즉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인격이 배어 나오는 뜨거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교회 생활에서 드러난 소박한 민주주의는 아무런 유산도 물려받지 못한 서민층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개개인에게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오직 성경에만 순종할 것을 권면하였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허락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성경을 통해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특징은 다른 교파나 교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자유와 평등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 주기 위해 침례 성도들은 전력투구하였으며 또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천주교회의 유아세례와 성만찬의 화체설이라는 이단 교리와 싸우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의 선조들은 이러한 희생으로 온 인류의 자유/독립 역사를 수놓아 왔으며 그 결과 오대양 육대주의 자유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갈채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를 맞은 이 험한 시대에서 우리 침례 성도들은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펠전', 불굴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등과 같은 침례교 선조들의 본을 따라 세상을 향해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우리 침례 성도들의 전성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옥의 문들을 부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침례교회의 창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성도들(Baptists)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는다. 침례 성도들의 순교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함을 더럽히는 그 어떤 연합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찰스 스펠전



CHARITY BAPTIST CHURCH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엡1:23)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곱곰이 생각하라. (빌4:8)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데도.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22:21-22)

KING JAMES BIBLE 1611
